

『삼국유사』 위만조선 관련 기록의 서술 의도

The Descriptive Intention Contained in the Records of Samgukyusa Related to Wiman Joseon

저자 (Authors)	김남중 Kim Nam-jung
출처 (Source)	사학연구 , (139), 2020.9, 49-86 (38 pages) Sahak Yonku : The Review of Korean History , (139), 2020.9, 49-86 (38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사학회 The Historical Society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475515
APA Style	김남중 (2020). 『삼국유사』 위만조선 관련 기록의 서술 의도. 사학연구, (139), 49-8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16 13:5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삼국유사』 위만조선 관련 기록의 서술 의도

김 남 중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머리말

I. 위만조선 관련 문헌의 인용 태도

II. 위만조선과 고조선·신라·부여·고구려
관계 기사의 성격

맺음말

- 투고일: 2020. 8. 5.
- 심사일: 2020. 8. 10.
- 게재확정일: 2020. 8. 23.
- <https://doi.org/10.31218/TRKH.2020.09.139.49>

요약

이 글은 『삼국유사』에서 위만조선을 중시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삼국유사』 위만조선 조는 위만조선을 돋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한서』를 축약하였다. 또한 일연은 준왕이 기자의 후손이라는 것과 기자의 고조선 사회 교화 내용을 다루지 않는 방식으로 위만조선을 우호적으로 서술하였다. 일연이 위만조선에 주목한 것은 위만조선이 단군왕검이 세운 고조선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라, 고구려, 부여 등 고려를 이룬 여러 구성원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나라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위만조선은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평양에 도읍하였으며 단군왕검의 이름을 도읍명으로 사용한 국가로, 『삼국유사』에 단군왕검은 고조선의 창립주, 위만은 고조선의 강역을 크게 넓힌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일연이 위만을 연에 복속되었던 고조선계로 보았다는 것과 우리 동방과 관련 있음을 드러내고 싶어 했음을 살필 수 있다. 일연은 연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신라가 혈연적으로 고조선계임을 말하고 싶어 했다. 그러면서 낙랑과 대방 주민의 신라 투항 기사에서 고조선 주민의 신라 이주를 제시하였다. 일연은 신라와 위만조선의 관계를 통해 신라는 중국계가 아닌 단군왕검이 세운 고조선을 계승한 국가임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부여·고구려 모두 요동 일대에서 성립된 것으로 서술하였다. 요동은 전국 시대에 연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일연이 부여·고구려도 위만조선·신라와 동일한 지역에서 나왔다고 인식하였음을 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 위만조선은 고구려와 신라가 모두 고조선에서 나왔음을 설명해주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연은 위만조선을 통하여 단군왕검이 고려 구성원 전체의 시조임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이에 기자의 비중을 낮추고 위만조선에 주목하였다.

『삼국유사』 위만조선 관련 기록의 서술 의도

주제어 : 위만조선, 『삼국유사』, 고조선, 신라, 고구려, 부여, 연결
고리

머리말

위만은 기자에 의해 교화된 고조선을 멸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고려 시대부터 이미 비판적으로 인식되었지만,¹⁾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에 서는²⁾ 위만조선을 약간 다르게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한서』를 축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만조선 조는 고조선(왕검조선) 조와 달리 고조선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받지 못했다. 위만의 성씨를 ‘魏’로 적은 것,³⁾ 『사기』·『한서』 등에 ‘王險’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王儉’으로 기록한 것⁴⁾ 정도가

- 1) 위만조선에 대해 『삼국사기』에서는 漢 초부터 참람한 칭호가 있었다고 평하였으며(『三國史記』 권29, 年表 上), 『제왕운기』에서는 우거왕 때 이미 허물이 가득 찼고 漢을 배반하고 준왕을 쫓아냈기 때문에 재앙이 이른 것은 마땅했다고 하였다(『帝王韻紀』 卷下, 東國君王開國年代, 衛滿朝鮮紀).
- 2) 『삼국유사』의 편찬자로는 막연히 일연으로 알려져 왔다가 일연뿐만 아니라 그 문도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蔡尙植, 1986, 「至元 15年(1278) 仁興社刊 歷代年表와 三國遺事」,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685~702쪽.), 일연 사후에 문도들이나 제3자의 관여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거나(李根直, 1998, 「『삼국유사』 왕력의 편찬성격과 시기」, 『韓國史研究』 101, 25~49쪽; 河廷龍, 1998, 「『三國遺事』의 編纂과 刊行」, 『先史와 古代』 11, 163~174쪽.), 後人の 夾註가 존재한다는 입장(윤선태, 2015, 「『三國遺事』의 後人夾註에 대한 再檢討」, 『한국고대사연구』 78, 370~380쪽.)이 제기되었다. 다시 최근에는 전체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있고(김수태, 2017, 「『삼국유사』의 편목구성과 삼한·삼국통일론」, 『新羅史學報』 41, 182~218쪽.) 無極記로 표현된 곳 외에는 후인이 첨가했다고 볼만한 것이 없다는 주장(김상현, 2007, 「三國遺事의 編纂과 刊行에 대한 研究 現況」, 『佛敎研究』 26, 10~33쪽.)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삼국유사』 편찬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기로 보이거나 분주의 내용이 본문과 일관성이 보인다는 점에서 일연의 사유가 『삼국유사』 전반에 흐른다는 분석도 있다(李康來, 2005, 「『삼국유사』의 사서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0, 320~333쪽; 2010, 「『삼국유사』 편찬의 유기성 문제」, 『역사학연구』 40, 5~44쪽.). 이런 점에서 『삼국유사』의 대표 저자를 일연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다.
- 3) 이에 근거하여 고조선 조에 인용된 『魏書』를 위만조선에서 편찬한 사서로 이해하기도 한다(丁仲煥, 1977, 「三國遺事 紀異篇 古朝鮮條에 引用된 魏書에 對하여」, 『大邱史學』 12·13, 18~21쪽; 田中俊明, 1982, 「檀君神話의 歷史性을めぐって - 史料批判의 再檢討 -」, 『韓國文化』 4-6, 6~7쪽; 김성수, 2004, 「高句麗와 古朝鮮의 正體性 확인을 위한 『三國遺事』 紀異篇의 書誌的 分析」, 『書誌學研究』 29, 218~222쪽).

주목되었을 따름이다.

『삼국유사』에서 위만조선 조는 고조선 조보다 내용이 많으며, 『한서』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⁵⁾ 이 점은 『삼국유사』에서 중국 사서를 인용할 때 대폭 축약하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는 점과⁶⁾ 명확히 비교되는 부분이다. 『한서』의 본문뿐만 아니라 주석까지 인용하여 위만조선 조를 서술하고 있는데, 중국 사서의 내용을 위만조선 조만큼 상세하게 인용한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위만조선에 대한 일연의 서술에는 특별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연이 위만조선에 주목한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삼국유사』는 비슷한 시기에 저술된 『제왕운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를 단군왕검이 세운 고조선에서부터 서술하였다. 고려 후기에 단군왕검이 고려 구성원 전체의 시조로 확대된 이유에 대해서는 몽골 간섭이라는 시대 상황에서 결속력 강화와 자주 의식 고양,⁷⁾ 12~13세기 고려 내부에서 일어난 분열 의식 극복⁸⁾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논의된다. 이러한 점은 단군왕검에 의해 건설된 고조선과 관련된 인식이었기 때문에 위만조선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
- 4) 李丙燾, 1976, 「檀君說話의 解釋과 阿斯達問題」,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34쪽; 김남중, 2014, 「위만의 출신 종족에 대한 再考」, 『先史와 古代』 42, 11~12쪽.
 - 5) 김성수, 2004, 앞의 논문, 229~230쪽.
 - 6) 『삼국유사』는 고조선·고구려·백제사에 대해서는 중국 사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김두진, 2004, 「『삼국유사』의 인용문과 그 성격」, 『史學研究』 76, 98쪽), 二府, 七十二國 조에 인용된 『前漢書』, 『通典』, 『後漢書』 등은 축약과 改變이 심하다(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9, 『역주 고조선 사료집성 국내편』, 새문사, 23~24쪽). 일부 자료는 의도적으로 변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 7) 河炫綱, 1975, 「高麗時代의 歷史繼承意識」, 『梨花史學研究』 8, 18~20쪽; 徐永大, 1994, 「檀君關係 文獻資料 研究」, 『檀君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69~71쪽; 이익주, 2003, 「고려후기 단군신화 기록의 시대적 배경」, 『문명연지』 9, 55~57쪽; 김성환, 2006, 「고려시대 단군관의 역사적 정립」, 『白山學報』 75, 335~341쪽.
 - 8) 李在云, 1984, 「<三國遺事>의 始祖說話에 나타난 一然의 歷史認識」, 『全北史學』 8, 3~4쪽; 閔賢九, 1989, 「高麗中期 三國復興運動의 역사적 의미」, 『韓國史市民講座』 5, 102~106쪽; 김수태, 2017, 앞의 논문, 216~217쪽.

『삼국유사』 마한 조에는 최치원의 삼한-삼국 계승론을 수용하여 마한에서 고구려, 변한에서 백제가 나왔다는 것을 긍정하였다. 또한 위만조선 멸망 이후 한이 설치한 4군 지역에서 삼한의 70여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신라와 고구려 모두 위만조선을 통해 고조선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삼국유사』는 신라 중심적이라는 입장⁹⁾과 함께 고구려¹⁰⁾ 또는 부여 계열 국가¹¹⁾를 강조했다라는 입장도 있다. 신라, 고구려 모두를 강조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다.¹²⁾ 일연이 고조선에서부터 동방의 역사를 서술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 고려 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조상에서 나왔음을 제시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과정에서 일연이 위만조선을 통해 고구려와 신라가 고조선에서 나왔다고 주장할 만한 실마리를 찾았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 단서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만조선과 고조선, 고조선 및 위만조선과 신라·고구려의 연결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국가 계승 의식에 대한 검토가 최근 이루어지

-
- 9) 崔南善, 1946, 「三國遺事解題」, 『新訂 三國遺事』, 三中堂書店, 7쪽; 金煥泰, 1974, 「三國遺事の體裁와 그 性格」, 『東國大學校論文集』 13, 14~16쪽; 崔相天, 1985, 「《三國遺事》에 나타난 國家繼承意識의 검토」, 『韓國傳統文化研究』 1, 243~256쪽; 박진태 외, 2002,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박이정, 82~84쪽; 주보돈, 2017, 「『삼국유사』를 통해본 일연의 역사 인식」, 『嶺南學』 63, 138~140쪽.
 - 10) 차광호, 2009,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紀異)편’의 저술의도와 고구려인식」, 『史學志』 41, 69쪽.
또한 하정용은 『삼국유사』에 대해 신라사 못지않게 고구려사의 보고라고 평하였다(2009, 「『삼국유사』 고구려 관련 기사의 성격에 대한 일 고찰」, 『韓國史學史學報』 20, 72쪽.).
 - 11) 엄태웅, 2015, 「삼국유사 「기이」 부여·고구려 관련 기사의 서술 의도 -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에 대한 역사적·서사적 접근 -」, 『洙上古典研究』 47, 624~663쪽.
 - 12) 김주성은 『삼국유사』가 신라 국왕 중심으로 서술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구려에 대한 애착도 보였다고 하였다(2010, 「삼국유사 기이편 신고찰」, 『한국학논총』 34, 505~523쪽.).

고 있는데, 이는 고려를 이룬 여러 구성원이 고조선에서 분화되었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고조선이 위만조선과 마한으로 분화·계승되었다고 본다.¹³⁾ 그러나 『삼국유사』에는 마한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으며, 위만조선에 대해 지리적 차원에서의 계승자 이상의 인식이 있음을 살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고조선, 신라, 부여, 고구려 등과 관련된 기록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I. 위만조선 관련 문헌의 인용 태도

『삼국유사』에는 『한서』와 『삼국지』에 있는 위만조선 관련 기사를 축약하여 서술하였다. 원문과 요약된 내용을 비교하면 일연이 어떤 점에 주안을 두고 위만조선을 서술했는지를 살필 수 있다. 먼저 『한서』 조선 전의 경우는 50% 정도를 축약하였는데, 주석도 선택적으로 포함하였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서』 조선 전	『삼국유사』 위만조선 조
A	① 朝鮮王滿燕人 自始燕時嘗略屬眞番朝鮮爲置吏築障秦滅燕屬遼東外徼漢興爲遠難守復修遼東故塞至涘水爲界屬燕燕王盧綰反入匈奴滿亡命聚黨千餘人 ② 椎結蠻夷服而 東走出塞渡涘水居秦故空地上下障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在者王之都王險(107자)	自始燕時常畧得眞番朝鮮爲置吏築障秦滅燕屬遼東外徼漢興爲遠難守復修遼東故塞至涘水爲界屬燕燕王盧綰反入匈奴 ③ 燕人魏 滿亡命聚黨千餘人東走出塞渡涘水居秦故空地上下障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都王儉(98자)

- 13) 李基白, 1984, 「三國遺事 紀異篇의 考察」, 『新羅文化』 1, 7쪽; 崔相天, 1985, 앞의 논문, 257쪽; 김병곤, 2011a, 「『삼국유사』 찬자의 상고기 정치체에 대한 계승 인식」, 『韓國史學史學報』 23, 30~31쪽; 김두진, 2014,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연구』, 일조각, 238~240쪽.

B	<p>①會孝惠高后天下初定遼東太守卽約滿爲外臣保塞外蠻夷毋使盜邊蠻夷君長欲入見天子勿得禁止以聞上許之以故滿得 以兵威 ②財物 侵降其旁小邑眞番臨屯皆來服屬方數千里(73자)</p>	<p>以兵威侵降其旁小邑眞番臨屯皆來服屬方數千里(21자)</p>
C	<p>傳子至孫右渠 ①所誘漢亡人滋多又未嘗入見 眞番辰國欲上書見天子 ②又雍闕弗通元封二年漢使涉何 ③譙 諭右渠終不肯奉詔何去至界臨涓水使馭刺殺送何者朝鮮裨王長卽渡水馳入塞遂歸報天子 ④曰殺朝鮮將上爲其名美弗詰 拜何爲遼東東部都尉朝鮮怨何 ⑤發兵 攻襲殺何(111자)</p>	<p>傳子至孫右渠眞番辰國欲上書見天子雍闕不通元封二年漢使涉何諭右渠終不肯奉詔何去至界臨涓水使馭刺殺送何者朝鮮裨王長卽渡水馭入塞遂歸報天子拜何爲遼東 ⑥之 部都尉朝鮮怨何襲攻殺何(83자)</p>
D	<p>天子 ①募罪人擊朝鮮其秋 遣樓船將軍楊僕從齊浮勃海兵五萬左將軍荀彘出遼 ②東 誅右渠右渠發兵距險 ③左將軍卒多率遼東土兵先縱敗散多還走坐法斬 樓船將齊兵七千人先至王險右渠城守窺知樓船軍少卽出擊樓船樓船 ④軍 敗走 ⑤將軍 僕失其衆遁山中 ⑥十餘日稍求收散卒復聚 左將軍擊朝鮮涓水西軍未能破(126자)</p>	<p>天子遣樓船將軍楊僕從齊浮渤海兵五萬左將軍荀彘出遼討右渠右渠發兵距險樓船 ⑦將軍 將齊七千人先到王儉右渠城守規知樓船軍小卽出擊樓船樓船敗走僕失衆遁山中 ⑧獲免 左將軍擊朝鮮涓水西軍未能破(86자)</p>
E	<p>天子爲兩將未有利乃使衛山因兵威往諭右渠右渠 ①見使者頓首謝願降恐將詐殺臣今見信節 請 ②服 降遣太子 ③入謝 獻馬 ④五千匹及饋軍糧 人衆萬餘持兵方度涓水使者及左將軍疑其爲變謂太子已服 ⑤降 宜 ⑥令人 毋持兵太子亦疑使者 ⑦左將軍 詐之遂不度涓水復引歸 ⑧山 報天子誅山(112자)</p>	<p>天子爲兩將未有利乃使衛山因兵威往諭右渠右渠請降遣太子獻馬人衆萬餘持兵方渡涓水使者及左將軍疑其爲變謂太子已服宜毋持兵太子亦疑使者詐之遂不渡涓水復引歸報天子誅山(78자)</p>
F	<p>左將軍破涓水上軍迺前至城下圍其西北樓船亦往會居城南右渠①遂 堅 ②城守數月未能下 ③左將軍素侍中幸將燕代卒悍乘勝軍多驕樓船將齊卒入海已</p>	<p>左將軍破涓水上軍迺前至城下圍其西北樓船亦往會居城南右渠堅守數月未能下天子以久不 ⑨能 決使故濟南太守公孫遂往正之有便宜 ⑩將 以從事</p>

	<p>多敗亡其先與右渠戰困辱亡卒卒皆恐將心慙其圍右渠常持和節左將軍急擊之朝鮮大臣酒陰間使人私約降樓船往來言尙未肯決左將軍數與樓船期戰樓船欲就其約不會左將軍亦使人求間隙降下朝鮮不肯心附樓船以故兩將不相得左將軍心意樓船前有失軍罪今與朝鮮和善而又不降疑其有反計未敢發天子 ④曰將率不能前乃使衛山諡降右渠不能顛決與左將軍相誤卒沮約今兩將圍城又乖異以 ⑤故久不決使故濟南太守公孫遂往正之有便宜得以從事遂至 ⑥左將軍曰朝鮮當下久矣不下者樓船數期不會具以素所意告遂曰今如此不取恐爲大害非獨樓船又且與朝鮮共滅吾軍遂亦以爲然而以節召樓船將軍入左將軍軍計事即令左將軍獻下執縛樓船將軍並其軍 ⑦以報天子許遂左將軍 ⑧已并兩軍即急擊朝鮮(354자)</p>	<p>遂至縛樓船將軍並其軍 ⑩與左將軍急擊朝鮮(78자)</p>
G	<p>朝鮮相路人相韓陶尼谿相參將軍王峽相與謀 ①曰始欲降 ②樓船樓船今執獨左將軍并將戰益急恐不能與王 ③又不肯降陶峽路人皆亡降漢路人道死元封三年夏尼谿相參 ④酒使人殺 ⑤朝鮮王右渠來降王險城未下故右渠之大臣成已又反 ⑥復攻吏左將軍使右渠子長 ⑦降相路人子最告諭其民誅成已(118자)</p>	<p>朝鮮相路人相韓陶尼谿相參將軍王峽相與謀欲降王不肯 ⑧之陶峽路人皆亡降漢路人道死元封三年夏尼谿相參使人殺王右渠來降王險城未下故右渠之大臣成已又反左將軍使右渠子長路人子最告諭其民 ⑨謀殺成已(89자)</p>
H	<p>故遂定朝鮮爲眞番臨屯樂浪玄菟四郡 ①封參爲淸清侯陶爲秋菑侯峽爲平州侯長爲幾侯最以父死頗有功爲沮陽侯左將軍徵至坐爭功相嫉乖計棄市樓船將軍亦坐兵至列口當待左將軍擅先縱失亡多當誅贖爲庶人(88자)</p>	<p>故遂定朝鮮爲眞番臨屯樂浪玄菟四郡(16자)</p>

위만의 건국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A 부분은 9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한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변경된 부분은 크게 두 곳인데, 먼저 조선왕 만이 연 지역 사람이라는 첫 구절(A-①)을 삭제하였다. 그 대신 문장 중간에 위만이 연 지역 사람이라는 내용(A-③)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축약이라기보다는 문장을 다듬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된 내용은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첫 구절을 조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서』에 없던 위만의 성씨를 ‘魏’로 표기하였다.

다음으로 위만이 ‘추결만이복’ 차림을 하였다는 내용(A-②)이 삭제되어 있다. 이 부분은 위만이 고조선계임을 주장하는 근거로도 언급되는데¹⁴⁾ 일연은 오히려 이 부분을 빼고 위만이 연 지역 사람임을 제시하고 있다. 일연은 위만이 오랑캐 출신이 아닌 연 지역 출신임을 드러내고자 했음을 볼 수 있다.

위만조선의 세력 확대 과정을 다루고 있는 B 부분에서는 73자 중 52자가 삭제될 정도로 대폭 축소되어 있다. 『삼국유사』의 내용으로만 보면 위만이 군사의 위세로 주변 소읍들을 쳐서 강역을 수천 리로 늘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서』에서는 위만이 한의 외신이 되어 한으로부터 물자를 얻어서 강역을 늘린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위만이 한의 외신이 되었다는 내용(B-①), 위만이 한의 도움을 얻어 세력을 키웠다는 내용(B-①, ②)이 삭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삼국유사』가 비록 『한서』 조선 전을 인용하고 있지만 『한서』에 비친 모습과 전혀 다르게 위만조선의 세력 확대 과정이 서술되었다. 즉 위만조선은 한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세력을 키웠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 무제의 조선 침공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C 부분은 111자 중 28자 정도가 줄어들었다. 삭제된 부분은 크게 세 곳이다. 첫 번째는 위만조선

14) 李丙燾, 1976, 「衛氏朝鮮興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80~81쪽; 김남중, 2014, 앞의 논문, 10쪽.

의 우거왕이 한나라 망명객들을 유혹한 것이 많았으며 일찍이 한나라 천자에 알현하지 않았다는 내용(C-①)이다. 한이 위만조선에 불만을 품게 된 근원적인 배경을 삭제한 것으로, 이로 인해 한이 위만조선에 불만을 품게 된 원인으로는 위만조선이 진번·진국과 한의 교류를 막은 것만 남게 되었다. 위만조선이 한에 알현을 해야 되는 나라 즉 제후국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삭제된 셈으로, B 부분과 마찬가지로 위만조선이 한에 종속되어 있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두 번째는 한나라 사신으로 온 섭하가 우거왕을 회유하려 한 내용에서 ‘譙’ 한 글자를 삭제한 부분(C-③)이다. 한 글자를 뺀 것이지만 이를 통해 위만조선이 한으로부터 꾸짖음을 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譙諭’ 대신 ‘諭’로만 서술하여 한이 위만조선에 위압적인 자세를 취할 나라가 아니었음을 제시한 것이다.

세 번째는 한나라 천자가 조선의 비왕 장을 죽인 섭하를 칭찬하고 힐난하지 않았다는 내용(C-④)이 삭제되어 있다. 섭하의 행동을 한나라가 정당하게 보았음을 드러낸 부분이 삭제된 것이다. 반면 섭하가 비왕 장을 죽인 내용은 그대로 두어 위만조선이 섭하를 죽인 것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였다. 즉 한에 우호적인 부분은 줄이고 한이 전쟁 원인을 제공한 부분은 그대로 두었음을 볼 수 있다.

D 부분은 한이 군사를 일으킨 초기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126자 중 40자 정도가 줄어들었다. 세 부분에서 축약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한 황제가 조선을 칠 때 죄수들을 모집했다는 내용(D-①)이다. 한나라 내부에서 일어난 일로, 한의 군대가 죄수들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삭제한 셈이다. 두 번째는 좌장군 휘하의 졸정 다가 몇대로 군사를 움직였다가 패한 내용(D-③)이다. 위만조선이 승리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생략되었다. 세 번째는 위만에게 패한 누선장군이 산속을 헤맨 내용(D-⑥)이다. 내용 전개상 삭제하거나 줄여도 사건 이해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E 부분은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한 황제가 위산을 파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112자 중에서 34자가 줄어들었다. 위산의 회유로 우거왕이 항복을 청하려다가 돌이킨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우거왕이 한나라 사신에게 머리를 조아렸다가(E-①, ②) 말 5천 필과 군량을 지급했다는 내용(E-③, ④)이 삭제되어 있다. 『삼국유사』에는 단지 말을 바쳤다고만 하였고 한에 바친 말의 구체적인 수효는 제시하지 않았다. 위만조선의 굴욕적인 내용을 최대한 줄였음을 볼 수 있다.

F 부분은 한이 왕검성을 포위 공격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354자에서 78자로 대폭 줄어들었다. 『삼국유사』에는 왕검성 포위 상황이 오래 지속되자 한 황제가 공손수를 보냈고 좌장군이 누선장군의 군대를 합쳐 공격했다는 내용을 짧게 표현하였다. 좌장군과 누선장군 군대의 정황과 위만조선이 화친을 추진한 내용(F-③, ④), 좌장군이 누선장군의 군대를 병합한 구체적 상황(F-⑥, ⑦, ⑧) 등이 모두 축약되었다. 위만조선이 주체가 되어 전개한 것이 아닌 부분이 대폭 삭제되었고, 위만조선 대신들이 몰래 한과 접촉한 부분도 삭제되었다. 『삼국유사』의 내용으로는 위만조선이 한의 공격을 오랫동안 막아내고 있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위만조선 대신들이 전쟁 중에 몰래 한과 화친을 추진했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G는 위만조선이 내분으로 인해 멸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118자에서 89자로 줄어들어 있다. 축약된 부분은 크게 두 부분이다. 첫 번째는 위만조선 대신들이 모의하여 한에 항복한 부분(G-①, ②)이다. 두 번째는 우거왕 사후 성이를 중심으로 하여 왕검성 주민이 반기를 일으킨 부분에서 ‘復攻吏’라는 부분(G-⑥)이다. 이미 반기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復攻吏’는 중복되는 내용이다. 또한 한의 군대를 ‘吏’로 표현한 것은 다분히 중국적 시각이다. 이밖에 ‘조선왕 우거’를 ‘왕 우거’라 하여 ‘조선’ 두 글자를 삭제했는데, 우거왕이 이미 조선 왕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삭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대한 한이 아닌 위만조선을 주체로 놓고 서술

하였음을 볼 수 있다.

H 부분은 한이 위만조선 지역에 4군을 설치하고 논공행상을 하는 부분이다. 『삼국유사』에는 4군 설치 기사 다음의 72자(H-①)가 모두 삭제되었다. 즉 한이 항복한 위만조선의 대신을 후로 봉한 내용과 누선장군과 좌장군에 벌을 준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다. 이 내용은 모두 한이 추진한 것으로 위만조선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삭제한 것을 볼 수 있다.

대체로 축약된 부분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첫째, 일단 내용을 줄이고자 하였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나 위만조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은 가급적 줄였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위만조선이 한에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던 부분을 최대한 삭제하였다. 한의 외신이 되었다거나 한에게 많은 물자를 제공하고 항복하려 했던 내용들이 삭제되었고, 위만조선이 한의 황제에 알현하지 않았다는 내용, 한의 사신이 우거왕을 꾸짖었다는 표현 등이 삭제되었다. 조선 시대에 편찬된 『동국통감』¹⁵⁾ 『표제음주동국사략』¹⁶⁾ 등에서 위만조선에 대해 『삼국유사』보다 적은 분량을 실으면서도 오히려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던 점과 차이를 보인다.¹⁷⁾ 셋째, 위만을 오랑캐시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이는 위만조선이 문화적으로 낙후되지 않았음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삭제되면서 『삼국유사』에는 위만조선이 주체적으로 세력을 확대하였으며 한의 침공에 맞서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항전하

15) 『東國通鑑』, 外紀, 衛滿朝鮮.

16) 『標題音註東國史略』 권1, 前朝鮮.

17) 오운의 『東史纂要』, 조정의 『東史補遺』, 허목의 『東事』, 이유장의 『東史節要』, 홍만중의 『東國歷代總目』, 이돈중의 『同文廣考』, 심대운의 『東史』, 안중화의 『東史節要』 등도 위만조선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안정복의 『東史綱目』, 이종희의 『東史』에서는 위만이 속임수를 써서 나라를 빼앗은 것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난하였다. 홍여하의 『東國通鑑提綱』은 朝鮮紀 箕準王 조에서 위만조선을 다루었으며, 이원익의 『紀年東史約』에서는 辰國三韓紀에서 위만조선을 다루어 위만조선의 위상을 낮추었다.

였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반면 위만이 연 지역 출신이었고 고조선이 한때 연에 복속되어 있었다는 점은 그대로 제시하였다.

『삼국유사』는 『한서』의 주석도 인용하고 있는데, 고려·조선 시대 사서에서 위만조선에 대한 내용에서 주석까지 인용한 것은 흔치 않다.¹⁸⁾ 그만큼 『삼국유사』는 위만조선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당나라 때 안사고가 정리한 『한서』 주 중에 7개가 실려 있는데,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正文	『한서』 조선 전 註文	『삼국유사』 위만조선 조 註文
I	眞番·朝鮮	師古曰 戰國時燕國略得此地	師古曰 戰國時■因始畧得此地也
J	溟水	師古曰 溟水在樂浪縣 音普蓋反	師古曰 溟在樂浪郡
K	王險/ 王儉	李奇曰 地名也	李曰 地名 臣讚曰 王儉城在樂浪郡溟水之東
L	右渠	師古曰 滿死傳子子死傳孫 右渠者其孫名也	師古曰 孫名右渠
M	辰國	師古曰 辰謂辰韓之國也 雍讀曰壅	師古曰 辰謂辰韓也
N	裨王 長	師古曰 長者裨王名也 送何至溟水何因刺殺之	師古曰 送何者名也
O	朝鮮相~ 王峽	應劭曰 凡五人也戎狄不知官紀故皆稱相 師古曰 相路人一也 相韓陶二也 尼谿相參三也 將軍王峽四也 應氏乃云五人 誤讀爲句 謂尼谿人名 失之矣 不當尋下文乎 峽音頰	師古曰 尼谿地名四人也

18) 위만조선 관련 기록에서 註文까지 인용한 것은 한치윤의 『海東歷史』 정도가 있다. 『海東歷史』는 중국·일본 등의 사서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실었다는 성격을 지닌 책으로, 위만조선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은 내용을 실으려 하였기 때문에 주문도 포함된 것이다.

『삼국유사』에 인용된 주석을 보면 대체로 『한서』 주의 원래 내용보다 축약되어 있으며, 변경하기도 했음을 볼 수 있다. 패수(J)와 진국(M)에 대한 주는 『한서』 주문을 약간 축약하였으며, 우거(L), 비왕 장(N), 조선 상 이하(O) 내용에 대한 주는 본래 주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내용을 조정하였다.

반면 진번·조선(I)과 왕함/왕검(K)에 대한 주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 먼저 진번·조선에 대한 주에서 ‘燕國’은 ‘■因’으로 되어 있으며 ‘始’, ‘也’가 새로 추가되어 있다. 내용상 ‘■因’은 ‘燕國’으로 보인다.¹⁹⁾ 또한 두 글자를 추가하여 연나라가 진번·조선 지역을 복속한 것이 전국 시대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서』 주문의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2글자를 보충한 것이다.

왕함/왕검에 대한 주는 『한서』 조선 전에 없고 『한서』 지리지 요동군 조의 험독현에 대한 주문²⁰⁾ 중 일부로, 일연은 이 가운데 신찬의 주를 인용하였다. 왕검성이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 낙랑군 조에서 평양성이 옛 낙랑군이라는 『신당서』 기록을 인용하고 있는 점에서²¹⁾ 볼 때 일연은 위만조선이 도읍한 왕검성을 평양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고조선 조에 인용된 古記에서 단군왕검이 도읍으로 삼았던 평양을 위만 역시 도읍으로 삼았음을 주목한 것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고조선(왕검조선)과 위만조선은 모두 같은 지역에서 건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문의 내용을 통해 일연은 연이 고조선을 복속한 내용이나 왕검성에

19) 崔光植 外, 2002, 『『三國遺事』點校(1)』, 『韓國史學報』 12, 406쪽.

20) 『漢書』 권28下, 地理志 8下, 遼東郡 險瀆縣, “應劭曰 朝鮮王滿都也依水險故曰險瀆 臣瓚曰 王險城在樂浪郡溟水之東此自是險瀆也 師古曰 瓚說是也溟音普大反”

21) 『三國遺事』 권1, 紀異 1, 樂浪國, “新唐書注云 平壤城 古漢之樂浪郡也.”

낙랑군이 설치된 내용을 숨기려 하지 않았으며 왕검성과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하였음을 볼 수 있다.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조선·위만조선과 연의 관계를 감추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위만조선에 대한 내용은 마한 조에도 보인다. 여기에는 『삼국지』 위지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 P-1. [조선의] 후 회(준)가 참람하게도 왕이라 칭하였다. 연의 亡人 위만에게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김을 당하자 그 좌우에 있던 궁인들이 거느리고 달아나 바다로 들어갔다. 韓 땅에 거하면서 스스로 한왕이라 불렀다.²²⁾
2. 위만이 조선을 격파하였다. [조선의] 왕 준이 궁인과 좌우에 있는 이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韓 땅에 이르렀다. 나라를 열어 마한이라 불렀다.²³⁾

『삼국지』(P-1)에는 고조선의 회왕(준왕)이 연에서 망명해 온 위만의 침공을 받아 나라를 빼앗겼다는 내용과 한으로 가서 한왕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체 문장의 주어를 회왕(준왕)으로 하여 서술하였다. 반면 『삼국유사』(P-2)에는 『삼국지』 위지의 내용을 변경하여 서술하였다. 먼저 위만과 준왕의 싸움에 대해 위만을 주어로 하여 서술하였다. 마한 조임에도 불구하고 위만 중심의 서술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위만이 연의 亡人이라는 내용도 빠져 있다. 망인이란 표현은 위만이 고조선에 의탁해 왔음을 내포한다. 실제 『삼국지』의 주문에 인용된 『위략』에서는 위만이 망명하여 준왕에게 의탁하자 준왕이 박사라는 관직을 내려준 내용

22) 『三國志』 권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侯淮既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 將其左右宮人 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

23) 『三國遺事』 권1, 紀異 1, 馬韓, “魏志云 魏滿擊朝鮮 王準率宮人左右 越海 而南至韓地 開國號馬韓.”

이 나온다. 『삼국유사』에서는 망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 인해 위만이 본래 준왕의 신하였는지 알기 어렵게 하였다. 『삼국유사』만 보면 위만이 조선을 복속하고 세력을 확대하였다는 정도로만 읽힌다. 위만조선 조에서 위만이 진번·조선 만이와 연·제 망명자를 모아 왕이 되었다고 한 점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다. 조선 시대 사서에서 위만을 비판한 가장 큰 이유는 신하된 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기 임금을 쫓아냈다는 것인데,²⁴⁾ 『삼국유사』에는 위만이 준왕의 신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조차 없다.

또한 『한서』, 『삼국지』 등에 나오는 기자 교화 내용²⁵⁾이 『삼국유사』에는 없으며, 『삼국지』²⁶⁾와 달리 준왕이 기자의 후손이라는 내용도 없다. 마한 조의 내용을 가지고 일연이 기자조선과 마한을 연결시켰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²⁷⁾ 『삼국유사』에는 기자조선의 존재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으며,²⁸⁾ 전통 시대 사서들과 달리 기자조선이 별도의 장으로 설정되어 있지도 않다.²⁹⁾ 『삼국사기』,³⁰⁾ 『제왕운기』³¹⁾ 등에서 기자를 동방 교

24) 허목은 위만이 세력이 약할 때 조선의 신하가 될 것을 빌었다가 세력이 강해진 뒤에 거짓으로 준왕을 쫓아내고 나라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불의함이 심하였다고 비판하였다(『記言』 권32, 外篇, 東事 1, 衛滿世家). 안정복은 위만이 준왕의 신하였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그를 篡賊으로 취급하였다(『東史綱目』 제1上, 箕子). 이종휘도 위만이 속임수로 나라를 빼앗고 우거왕이 漢에 사기를 친 것을 비난하였다(『修山集』 권11, 東史, 後朝鮮本紀).

25) 『漢書』 권28, 地理志 8下; 『三國志』 권30, 烏丸鮮卑東夷傳 30, 濊.

26) 『三國志』 권30, 烏丸鮮卑東夷傳 30, 濊, “昔箕子既適朝鮮 … 其後四十餘世 朝鮮侯 淮僭號稱王.”

27) 朴光用, 1980, 「箕子朝鮮에 대한 認識의 변천 - 高麗부터 韓末까지의 史書를 중심으로-」, 『韓國史論』 2, 255~256쪽; 韓永遇, 1982, 「高麗~朝鮮前期의 箕子認識」, 『韓國文化』 3, 29쪽; 최상진, 1985, 앞의 논문, 250쪽; 김병근, 2011a, 앞의 논문, 18~19쪽.

28) 이재운, 1984, 앞의 논문, 4쪽; 조원진, 2015, 「고려시대의 기자 인식」, 『韓國史學史學報』 32, 198~199쪽.

29) 박대재, 2018, 「『삼국유사』의 고조선·삼한 인식」, 『삼국유사의 세계』, 세창출판사, 80쪽.

30) 『三國史記』 권22, 高句麗本紀 10 보장왕 27년.

31) 『帝王韻紀』 卷下, 東國君王開國年代 後朝鮮紀.

화를 이끈 인물로 미화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삼국유사』만을 놓고 보면 위만은 기자에 의해 교화된 고조선 사회를 파괴한 자가 아니며, 위만이 쫓아낸 준왕도 기자와 무관한 존재이다. 이러한 『삼국유사』의 태도는 고려 시대에 대체로 기자를 중시했던 분위기와는³²⁾ 상반된다.

『삼국유사』 전체로 보더라도 기자에 대한 내용은 고조선 조에 주 호왕(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단군왕검이 장당경으로 옮겨갔다는 내용과 『구당서』 배구 전에 실린 내용을 축약한 것만 보인다.³³⁾ 이렇게 기자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서 『삼국유사』에는 위만을 기자에 의해 교화된 동방 문화의 파괴자라는 이미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 일연은 기자에 대한 내용을 대폭 줄이는 방식을 통해서도 위만조선을 돋보이게 한 것이다.

II. 위만조선과 고조선·신라·부여·고구려 관계 기사의 성격

1. 위만조선과 고조선의 관계 기록

『삼국유사』에는 고조선과 관련하여 고조선(왕검조선)과 위만조선 조가 있는데, 왕검이라는 공통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고조선 조에서는 고조선의 창시자로 단군왕검이 언급되어 있으며, 위만조선 조에는 위만의 도움으로 왕검이 언급되어 있다. 위만조선의 도움은 『한서』에서는 왕힘으로 되어 있으나 일연이 왕검으로 수정 제시하였다. 왕힘은 『사기』 조

32) 韓永遇, 1982, 앞의 논문, 23~32쪽; 조원진, 2015, 앞의 논문, 183~209쪽; 박대재, 2016, 「箕子朝鮮과 小中華」, 『韓國史學報』 65, 34~44쪽.

33) 『三國遺事』 권1, 紀異 1, 古朝鮮, “周虎王卽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 唐裴矩傳云 高麗本孤竹國[今海州] 周以封箕子爲朝鮮.”

선 열전에서 처음 나오는데, 왕검 또는 왕험이 위만조선 이전에 고조선의 도읍이었던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사료만 놓고 보면 왕검은 위만조선 때 처음 사용된 이름이다. 『삼국유사』는 단군왕검의 이름으로 왕검을 주목하고 있는데, 고조선 조의 편목을 왕검조선으로 표현하였다. 단군왕검을 왕검으로 표현한 사례는 고려 인종 때 편찬된 『삼국사기』³⁴⁾에도 보인다.

위만조선 조의 기록으로 보면 위만은 고조선뿐만 아니라 진번, 임둔 등과 연·제 망명객을 모아 국가를 세웠다. 고조선은 위만이 복속한 세력 중 하나인 셈이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위만은 다른 세력까지 복속하여 고조선의 강역을 확대한 인물이다. 고조선 조에 따르면 단군은 처음 평양에 도읍하였고, 이후 아사달, 장당경 등으로 거처를 옮겼다. 일연은 아사달의 위치는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고 배천, 개성 부근에 아사달과 관련된 백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을 실었다.³⁵⁾ 황해도 일대에서 아사달의 위치를 찾았음을 볼 수 있는데, 『삼국유사』 상으로 단군왕검이 세운 고조선의 강역은 그리 넓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만이 조선이라는 국명을 사용하면서 여러 세력을 복속하여 사방 수천 리에 이를 정도로 강역을 확대하였다. 위만에 의해 고조선의 강역이 확대된 셈이다. 고조선 조에서 일연은 평양에 도읍한 단군왕검은 고조선의 창시자로 제시하였는데, 위만조선 조에서는 위만을 고조선의 강역을 크게 넓힌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삼국유사』는 삼한 지역을 모두 고조선에서 나온 것처럼 서술하였다.³⁶⁾ 즉 2부 조에서는 『전한서』의 기록을 인용하여 조선의 옛 땅 평나·

34)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 5 東川王 21년 2월.

35) 『三國遺事』 권1, 紀異 1, 古朝鮮, “立都阿斯達[經云無葉山 亦云白岳 在白州地 或云在開城東 今白岳宮是].”

36) 박대재, 2018, 앞의 논문, 95~102쪽.

현도를 평주도독부로, 임둔·낙랑을 동부도위부로 삼았다고 서술하였다.³⁷⁾ 이어 72국 조에서는 『통전』을 인용하여 조선의 유민이 70여 국으로 나뉘었다고 하였으며, 『후한서』를 인용하여 한이 조선에 설치한 4군이 2부로 합쳐졌다가 삼한의 78개 국으로 나뉘었다고 서술하였다.³⁸⁾ 『전한서』·『후한서』·『통전』 등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개작하여³⁹⁾ 마치 위만조선에서 삼한의 70여 국가가 나온 것처럼 서술한 것이다. 실제 사료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조작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의 땅에서 70여국이 나왔다는 내용은 전적으로 일연 자신의 생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마한 조와 변한 백제 조⁴⁰⁾에서는 최치원의 주장을 수용하여⁴¹⁾ 고구려는 마한, 신라는 진한, 백제는 변한에서 나왔다는 입장을 취했다.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은 삼한에서 나왔고 삼한은 모두 위만조선에서 나왔다고 인식한 셈이다. 일연은 위만조선에 의해 확대된 고조선 지역에서

37) 『三國遺事』 권1, 紀異 1, 二府.

38) 『三國遺事』 권1, 紀異 1, 七十二國.

39) 『前漢書』를 인용했다는 내용은 『後漢書』 濊傳에 비슷한 내용이 전할 따름이며 平那는 나오지도 않는다. 『後漢書』에서 인용했다는 내용도 濊傳과 韓傳에 있는 내용을 축약·변형한 것이다. 『通典』 인용 자료도 오류가 심한데, 『통전』에는 韓에 마한, 진한, 변진 세 종류가 있으며 무릇 78개 국가가 있으며 지방이 사방 4천여 리라는 내용만 있을 뿐이며(『通典』 권185 邊方 1, “馬韓 後漢時通焉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 凡七十八國 … 地合方四千餘里”), 삼한 또는 마한이 조선의 유민이라는 표현은 없다. 『삼국유사』에는 『通典』 인용 자료의 오류가 심한데(송영대, 2019, 「『삼국사기』·『삼국유사』 찬자의 『통전』 활용과 인식 고찰」, 『韓國史研究』 186, 178~186쪽), 중국 사서를 인용한 다른 기록도 마찬가지이다.

40) 『三國遺事』 권1, 紀異 1, 馬韓, “崔致遠云 馬韓麗也 辰韓羅也(據本紀 則羅先起甲子麗後起甲申 而此云者 以王準言之耳 以此知東明之起 已并馬韓而因之矣 故稱麗爲馬韓 今人或認金山以馬韓爲百濟者 蓋誤濫也 麗地自有邑山 故名馬韓也); 『三國遺事』 권1, 紀異 1, 卞韓 百濟, “致遠云 卞韓 百濟也 按本紀 溫祚之起 在鴻嘉四年甲辰 卽後於赫世 東明之世四十餘年 而唐書云 下韓苗裔在樂浪之地云者 謂溫祚之系 出自東明 故云耳 或有人出樂浪之地 立國於卞韓 與馬韓等並峙者 在溫祚之前爾 非所都在樂浪之北也 或者濫九龍山 亦名卞那山 故以高句麗爲卞韓者 蓋謬 當以古賢之說爲是 百濟地自有卞山 故云卞韓.”

41) 趙法鍾, 1998, 「高句麗의 馬韓繼承 認識論에 대한 檢討」, 『韓國史研究』 102, 55~61쪽.

삼한·삼국이 나왔다고 본 것이다.⁴²⁾ 일연이 고조선의 정통을 위만조선이 아닌 마한으로 연결시켰다고 보기도 하나⁴³⁾ 위만조선 지역에서 삼한의 여러 나라가 나온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연은 마한에서 고구려가 나왔다고 인식하였으므로 준왕의 마한은 위만조선의 강역 안에 있는 셈이 된다.

한편 고조선은 위만에게 복속된 여러 세력 중 하나이고 위만은 연 지역 사람이라고 하였으므로 위만조선과 고조선을 같은 계통이라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연은 위만이 연 지역 출신임을 감추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위만조선 조에서 전국시대에 연이 진번·조선을 복속하고 관리를 두었다는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뒤에 위만이 진번과 조선을 다시 복속하였으므로 내용상 전국시대 연은 고조선의 일부만 복속한 셈이다. 그렇다면 전한 이전에 연 지역에는 고조선인이 살고 있는 셈이 된다. 이런 점에서 위만은 중국계가 아닌 고조선계일 여지가 있다.⁴⁴⁾ 일연은 이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위만조선 조에서 연의 고조선 복속과 위만이 연 지역 사람이라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실었던 것이다. 원문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주석의 내용까지 강조하여 추가하였던 점을 보면 일연은 위만이 연 지역 출신임을 매우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사기』·『한서』에는 위만의 성씨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위만의 성씨는 2세기 말 왕부가 편찬한 『잠부론』에 처음 언급되어 있으며, 3세기경에 편찬된 『위략』, 『삼국지』 등에도 나온다. 다만 대부분 사서에서는 ‘衛’라

42) 최상천, 1985, 앞의 논문, 248~250쪽.

43) 김두진, 2014, 앞의 책, 111~112쪽.

44) 실제 위만은 예맥계 또는 고조선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박시형, 1963, 「만 조선(滿朝鮮) 왕조에 관하여」, 『역사과학』 1963-3, 1~5쪽; 李丙燾, 1976, 「衛氏朝鮮興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76~82쪽; 서영수, 1996, 「衛滿朝鮮의 形成過程과 國家의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9, 95~96쪽; 김남중, 2014, 앞의 논문, 10~13쪽.).

한 반면에⁴⁵⁾ 『잠부론』에서만 유독 ‘魏’라 하였다.⁴⁶⁾ 일연은 처음으로 위만의 성씨를 언급한 『잠부론』을 따른 셈인데, 『삼국유사』에 『잠부론』 책명은 보이지 않는다. 일연이 ‘衛’가 아닌 ‘魏’를 수용한 것은 ‘魏’가 고려에 있던 성씨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衛’는 고려에 없는 성씨였고 ‘魏’는 예종의 묘정에 배향된 위계정⁴⁷⁾ 등이 확인된다. 당시 고려에 있는 성씨로 위만의 성씨를 표현한 것이다. 이는 일연이 위만을 고려의 구성원과 관련 있음을 드러내고 싶어 했음을 보여준다. 비록 위만이 연 지역 출신이지만 혈연적으로는 동방의 우리와 연결된다고 본 것이다.

2. 위만조선과 신라의 관계 기록

『삼국유사』에서는 전국시대에 연이 고조선을 복속하였고 위만이 연 지역 사람임을 숨김없이 제시하였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연에 대한 내용이 한 군데 더 나온다. 신라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진한에 대한 기록에서이다.

Q. 『후한서』에 이르길, “진한의 노인네들이 스스로 말하길 ‘秦의 亡人’으로 한국에 이르자 마한이 동쪽 지경의 땅을 떼어서 주었다’고 하였다. 서로 부르는 것을 ‘徒’라 하였으니, 진나라의 말과 엇비슷한 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혹은 이름을 秦韓이라 하였다. 열두 개의 소국이 있는데, 제각기 만 호였으며 나라라고 불렀다”라고 하였다. 또한 최치원이 이

45) 다수의 사서에서 衛로 표현하고 있다고 해서 위만의 성씨가 실제 衛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김한규는 衛는 위만의 본 職位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1980, 「衛滿朝鮮關係 中國則史料에 대한 再檢討」, 『釜山女大 論文集』 8, 135~136쪽.).

46) 『潛夫論』 권9 志氏姓 35, “其後韓西亦姓韓 爲魏滿所伐 遷居海中.”

47) 『高麗史』 권95, 列傳 8, 諸臣, 魏繼廷.

르길, “진한은 본래 도망친 연 지역 사람들이 피난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탁수의 이름에서 취하여 사는 고을을 일컬어 사탁, 점탁 등으로 불렀다”라고 하였다. [신라 사람의 방언에서는 ‘涿’의 음을 ‘도’로 삼았다. 그리하여 지금에 이르러서도 혹은 사랑이라고 하니, ‘梁’ 또한 ‘도’라고 읽는다.]⁴⁸⁾

진한 조에서는 『후한서』 기록⁴⁹⁾을 축약하여 진한이 진에서 온 망명객임을 밝히고 있는데, 진한과 진의 관계에 주목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삼국유사』 진한 조 기록은 『후한서』 내용과 차이가 있다. 진한에 12개의 소국이 있다는 내용은 『후한서』에 있지만 진한의 소국들이 각기 만 호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다.⁵⁰⁾ 『후한서』에는 삼한의 큰 자가 만여 호라고 했을 뿐이다. 『후한서』 한 전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형한 것이다. 진한과 진의 관계에 대한 내용만 『후한서』 기록을 충실히 따랐을 따름이다.

또한 최치원의 글을 인용하여 진한이 연 지역 사람과 관련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연은 전국시대를 동일한 진에 병합된 나라이다. 이런 점에서 진한이 진에서 내려왔다는 내용과 연 지역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서로 부합하는 점이 있다. 일연은 진한과 연이 관련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탁, 점탁 등 신라에서 고을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는 탁이 연 지역과 관련 있다는 내용까지 덧붙였다. 진한에 대한 최치원의 설은 다른 곳

48) 『三國遺事』 권1, 紀異 1, 辰韓, “後漢書云 辰韓耆老自言 秦之亡人 來適韓國 而馬韓割東界地以與之 相呼爲徒 有似秦語 故或名之爲秦韓 有十二小國 各萬戶 稱國 又崔致遠云 辰韓本燕人避之者 故取涿水之名 稱所居之邑里 云沙涿漸涿等[羅人方言 讀涿音爲道 故今或作沙梁 梁 亦讀道].”

49) 『後漢書』 권85 東夷列傳 75 韓, “辰韓 耆老自言秦之亡人 避苦 適韓國 馬韓割東界地與之 其名國爲邦 弓爲弧 賊爲寇 行酒爲行觴 相呼爲徒 有似秦語 故或名之爲秦韓.”

50) 『後漢書』 권85 東夷列傳 75 韓,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 …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 大者萬餘戶 小者數千家.”

에는 없는 기록으로, 일연이 특별히 주목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진한은 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과 관련 있음을 말하고 싶어 한 것이다. 진한이 연과 관련이 있다면 연 지역 출신으로 언급된 위만과 통하는 부분이 생긴다.⁵¹⁾ 연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진한과 위만을 연결시킴으로 다시 신라와 고조선이 연결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다음 낙랑국 조에서 일연은 낙랑군이 옛 조선국이라는 응소의 주와 평양이 한나라의 낙랑군임을 제시하였고, 혁거세 30년과 노례왕 4년에 낙랑 주민들이 신라에 투항하였다는 것과 신라 사람들이 낙랑을 칭했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⁵²⁾ 북대방 조에서는 낙랑 사람들과 함께 대방이 신라에 투항하였다고 기록하였다.⁵³⁾ 일연은 『한서』에 있는 응소의 주를 통해⁵⁴⁾ 낙랑군이 곧 고조선임을 밝히고 있다. 응소의 주를 인용하는 형태이지만 『삼국유사』의 중국 사서 인용 방식으로 볼 때 낙랑군이 옛 조선국이라는 표현은 일연의 생각에 부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당서』 자료를 통해 낙랑군이 평양에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위만조선 조의 패수에 대한 주석에서도 밝힌 것이다. 일연은 평양을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곳이자 위만조선의 도읍이었다고 제시한 바 있다. 결국 낙랑 주민의

-
- 51) 김병곤은 『삼국유사』에는 지배층이 아닌 기층 집단의 차원에서 ‘燕人 → (위만조선) → 진한 → 신라(서라벌)’의 계승 관계가 서술되어 있다고 하였다(2011a, 앞의 논문, 23쪽). 박대제도 중국 유이민이 위만조선을 거쳐 진한으로 유입된 내용이 『삼국지』, 『삼국유사』 등에 압축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보았다(2018, 앞의 논문, 97~98쪽).
- 52) 『三國遺事』 권1, 紀異 1, 樂浪國, “前漢時始置樂浪郡 應邵曰 故朝鮮國也 新唐書注云 平壤城 古漢之樂浪郡也 國史云 赫居世三十年 樂浪人來投 又第三禰禮王四年 高麗第三無恤王伐樂浪滅之 其國人與帶方[北帶方]投于羅 又無恤王二十七年 光虎帝遣使伐樂浪 取其地爲郡縣 薩水已南屬漢[據上諸文 樂浪即平壤城 宜矣 或云樂浪中頭山下 靺鞨之界 薩水今大同江也 未詳孰是] 又百濟溫祚之言 曰東有樂浪 北有靺鞨 則殆古漢時樂浪郡之屬縣之地也 新羅人亦以稱樂浪 故今本朝亦因之 而稱樂浪郡夫人 又大祖降女於金傳 亦曰樂浪公主.”
- 53) 『三國遺事』 권1, 紀異 1, 北帶方, “北帶方 本竹草城 新羅禰禮王四年 帶方人與樂浪人投于羅[此皆前漢所置二郡名 其後僭稱國 今來降].”
- 54) 『漢書』 권28下, 地理志 8下, “樂浪郡 … [應劭曰 故朝鮮國也].”

이주는 곧 고조선 주민의 이주인 셈이다.⁵⁵⁾ 이렇게 진한, 낙랑국, 북대방 조에서 일연은 위만조선을 매개로 하여 고조선과 신라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다만 『삼국유사』 혁거세왕 조에는 진한의 6촌장이 모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고조선과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았다.⁵⁶⁾ 『삼국사기』에서 신라 형성 이전에 조선의 유민이 진한의 6촌을 이루었다고 기록한 것과⁵⁷⁾ 차이를 지닌다. 혁거세 즉위 이전에 대한 기사는 『삼국유사』가 『삼국사기』보다 많은데, 『삼국유사』에는 신이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일연이 신라와 고조선의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였다면 조선 유민이 진한 6촌이 되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포함할만한데 그렇지 않았다. 이는 이미 여러 사료를 제시하여 신라가 고조선과 관련 있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삼국사기』의 조선 유민이 6촌을 이루었다는 기사는 주목하지 않은 듯하다. 또한 김부식과 일연이 본 혁거세 이전 사건에 대한 원전이 달랐을 수 있는데,⁵⁸⁾ 신라시조 혁거세왕 조에서는 『삼국사기』와 달리 6촌장이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서술하였다. 진한 6촌장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다시 진한이 조선에서 들어온 유민이라고 적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어 일연이 본 원전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삼국사기』는 아무런 설명 없이 진한과 조선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어 다양한 기록을 제시하여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일연의 서술 태도와도 차이를 보인다. 일연은 선언적인 표현

55) 최상천은 중국계든 삼한의 정치세력이든 모두 신라에 흡수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삼국유사』는 철저히 신라 중심적이라 하였다(1985, 앞의 논문, 253~254쪽.). 김병곤은 위만조선과 삼한은 지리적 계승 이외에도 낙랑국·북대방 주민의 신라 정착으로 살필 수 있는 인적 계승도 있음을 제시하였다(2011a, 앞의 논문, 19~21쪽.).

56) 『三國遺事』 권1, 紀異 1, 新羅始祖 赫居世王.

57)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 1, 赫居世居西干.

58) 김병곤, 2011b, 「斯盧國의 출범과 신라인의 건국관」, 『新羅史學報』 23, 52~54쪽.

보다는 최대한 근거 사료를 제시하는 형태로 기이 편을 작성하여 고조선과 다른 나라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3. 고조선·위만조선과 부여·고구려의 관계 기록

『삼국유사』 왕력 편에서는 고구려 동명왕 주몽을 단군의 아들이라 하여⁵⁹⁾ 고구려를 고조선의 계승자로 표현하였다.⁶⁰⁾ 고구려 조에서도 단군이 서하 하백의 딸과 관계하여 부여 왕 부루를 낳았다는 『단군기』 기록을 제시하였다.⁶¹⁾ 이어 주몽과 부루를 ‘異母兄弟’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내용상 주몽과 부루의 아버지가 해모수와 단군으로 다르게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모형제’는 ‘異父兄弟’의 오류이다. 그러나 『삼국유사』 북부여 조에서 해부루는 해모수의 아들로 언급되어 있으므로, 하백의 딸이 여럿이었다고 가정한다면 해부루와 주몽은 ‘이모형제’라 표현할 수 있다.⁶²⁾ 여기서 부루가 단군의 아들이라는 『단군기』 기록을 본문이 아닌 주석에 기록한 점에서 부여와 관련해서는 단군보다는 해모수 설화를 더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군 역시 부여와 관련 있음을 제시하려 했음을 볼 수 있다.

북부여 조에 인용된 고기에 보면 천제 해모수가 흘승골성에 내려왔다

-
- 59) 『三國遺事』 제1 王曆, “高麗 第一東明王 甲申立理十八 姓高名朱蒙 一作鄒蒙 壇君之子.”
- 60) 차광호, 2009, 앞의 논문, 65쪽.
- 61) 『三國遺事』 권1, 紀異 1, 高句麗, “[壇君記云 君與西河河伯之女要親 有產子 名曰夫婁 今據此記 則解慕濼私河伯之女而後產朱蒙 壇君記云 產子右曰夫婁 夫婁與朱蒙 異母兄弟也.]”
- 62) 이강래는 異母兄弟라는 표현이 誤記가 아닐 수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부루와 주몽은 북부여 조를 근거로 했을 때에는 해모수, 왕력 편과 『단군기』 등의 내용을 아울러 보았을 때에는 단군이라는 공통의 아버지가 존재함을 제시하였다(이강래, 2010, 앞의 논문, 28~29쪽).

고 전하는데, 일연은 흘승골성에 대해 “대요의 의주 경계에 있다”라는 주를 남겼다.⁶³⁾ 『삼국사기』에 의주는 북진 의무려산 부근으로 요동군에 있었다고 하였으므로⁶⁴⁾ 고려 시대에 의주가 요동군에 있었다고 알았음을 살필 수 있다. 또한 북부여 조에 인용된 고기에서 동명왕이 북부여를 계승하여 졸본부여를 세웠다고 하였으며,⁶⁵⁾ 고구려 조에서 졸본부여는 요동 경계에 있었다고 하였다.⁶⁶⁾ 북부여가 있던 곳에 졸본부여가 세워졌다고 하였으므로 의주를 요동에 있었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흘승골성이 의무려산 부근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일연은 북부여의 도읍인 흘승골성을 환인 일대가 아닌 그보다 서쪽의 요동 지역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⁶⁷⁾

요동은 전국 시대 연의 일부로, 의무려산 일대는 전국시대 연의 요서·요동군 일대였다.⁶⁸⁾ 위만조선, 신라와 마찬가지로 일연은 부여도 연 지역에서 나온 것으로 본 것이다. 이 부여에서 고구려(졸본부여)가 나왔다고 인식한 점을 고려하면⁶⁹⁾ 일연은 부여·고구려와 신라가 동일한 지역에서 나왔다고 인식한 셈이다. 특히 북부여 조 기록에 의하면 의주는

63) 『三國遺事』 권1, 紀異 1, 北扶餘, “古記云 前漢書宣帝神爵三年壬戌四月八日 天帝降于訖升骨城[在大遼醫州界] 乘五龍車 立都稱王 國號北扶餘 自稱名解慕漱.”

64) 『三國史記』 권37, 雜誌 6, 地理 4, “遼東郡 距洛陽三千六百里 屬縣有無慮 則周禮北鎮醫巫閭山也 大遼於其下置醫州.”

65) 『三國遺事』 권1, 紀異 1, 北扶餘, “東明帝繼北扶餘而興 立都于卒本州 爲卒本扶餘 卽高句麗之始.”

66) 『三國遺事』 권1, 紀異 1, 高句麗, “高句麗卽卒本扶餘也 或云今和州又成州等 皆誤矣 卒本州在遼東界.”

67) 엄태웅, 2015, 앞의 논문, 636~638쪽.

68) 裴眞永, 2005, 「燕國의 五郡 설치와 그 의미 - 戰國時代 東北아시아의 勢力關係 -, 『中國史研究』 36, 9~11쪽.

69) 최상천은 『삼국유사』에는 북부여-고구려의 역사 계승이 나타나 있다고 하였으며 (1985, 앞의 논문, 250~252쪽.), 이제운은 일연이 단군조선과 북부여를 연결시켜 민족 역사의 분명한 맥을 이어놓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하였다(1984, 앞의 논문, 8쪽.).

천제 해모수가 내려왔다는 점에서 특별한 장소이다. 『삼국유사』로 보면 이 특별한 지역을 부여, 고구려, 위만조선, 신라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구려 조에 인용된 『국사』 고려본기에서 동부여 왕 금와가 하백의 딸 유화를 만난 우발수를 태백산 남쪽으로 언급하고 있다.⁷⁰⁾ 태백산은 고조선 조에 인용된 고기에도 나온다. 여기에서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는 내용과 함께 태백산은 묘향산이라는 주장이 있다.⁷¹⁾ 환웅이 내려온 태백산 부근에서 주몽의 어머니 유화가 동부여 왕과 만난 셈이다. 이러한 내용은 일연이 고조선과 동부여의 위치가 근접했다고 이해했음을 보여 준다. 동쪽으로 이동한 동부여 역시 고조선 지역에서 활동하였다고 묘사한 것이다. 부루가 단군의 아들이라는 『단군기』 기록을 고려하면 일연은 고조선과 동부여도 긴밀한 관계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⁷²⁾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서는 배구 전에 실린 내용이 전한다. 배구 전은 『구당서』에서 인용하였다고 전한다.

- R. 『당서』 배구 전에서 이르기를, “고려는 본래 고죽국[지금의 해주]이다. 주나라가 기자를 봉하고 조선으로 삼았다. 한나라가 나누어서 세 군을 두었는데 현도, 낙랑, 대방[북대방]이다”라고 하였다. 『통진』 역시 이 내용과 같다. [『한서』에서는 진번, 임둔, 낙랑, 현도 4군으로 되어 있다. 지금은 3군이라 일컬었으며 이름도 또한 다르니 어떻게 된 것인가?⁷³⁾

70) 『三國遺事』 권1, 紀異 1, 高句麗, “金蛙嗣位 于時得一女子於大伯山南優渤水.”

71) 『三國遺事』 권1, 紀異 1, 古朝鮮,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即太伯今妙香山]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72) 최상천, 1985, 앞의 논문, 250~252쪽.

73) 『三國遺事』 권1, 紀異 1, 古朝鮮, “唐裴矩傳云 高麗本孤竹國[今海州] 周以封箕子爲朝鮮 漢分置三郡 謂玄菟 樂浪 帶方[北帶方] 通典亦同此說[漢書則眞臨樂玄四郡 今云三郡 名又不同 何耶].”

『삼국유사』에 인용된 배구 전은 『구당서』에 있는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구당서』에서는 ‘고려’가 아닌 ‘고려 땅’이 본래 고죽국이었고 하였다.⁷⁴⁾ 『삼국유사』는 ‘地’를 생략하여 고려가 곧 고죽국이고 조선이 된 것처럼 묘사하였는데, 여기서도 사료의 개작이 확인된다. 또한 『통전』에도 이와 같은 설이 있다고 하였으나 『통전』에는 고구려와 고죽에 대한 내용은 없고 한이 고조선을 멸한 뒤 낙랑·현도 등을 두었고 후에 다시 대방군을 두었다고 했을 뿐이며,⁷⁵⁾ 처음부터 대방군을 포함한 3군을 두었다는 내용도 없다.⁷⁶⁾ 또한 『통전』 조선 전에서는 『한서』와 동일하게 4군을 두었다고만 하였다.⁷⁷⁾ 다만 조선이 기자의 나라였다는 내용만 비슷하다. 고조선 지역에 3군을 두었다는 표현은 『한서』 오행지에 보이기는 하나⁷⁸⁾ 여기에는 구체적인 군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한서』 오행지 기록은 기원전 107년에 설치된 현도를 제외한 낙랑·진번·임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⁷⁹⁾ 또한 『구당서』에 언급된 배구의 딸은 수 양제에게 올린 것인데, 『통전』에는 수 양제에게 올린 내용은 없고 당 고조에게 올린 내용만 있다.⁸⁰⁾ 이렇게 원전을 개작하면서 이 내용을 실는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74) 『舊唐書』 권63, 列傳 13, 封倫·蕭瑀·裴矩·宇文士及, “矩因奏曰 高麗之地 本孤竹國也 周代之以封箕子 漢時分爲三郡 晉氏亦統遼東.”

75) 『通典』 권180, 州郡 10, 古青州, “秦二漢曰遼東郡 東通樂浪[樂浪本朝鮮國 漢元封三年 朝鮮人斬其王而降 以其地爲樂浪玄菟等郡 後又置帶方郡 並在遼水之東 浪音郎.]”

76) 이는 『통전』 기록을 誤讀한 것일 수도 있으나(이강래, 2010, 앞의 논문, 42~43쪽.) 『삼국유사』에 중국 자료의 변조가 너무 잦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개작일 수도 있다.

77) 『通典』 권185, 邊防 1, 東夷 上, 朝鮮, “周封殷之太師之國 … 遂以朝鮮爲眞蕃臨屯樂浪[音郎]玄菟四郡 今悉爲東夷之地.”

78) 『漢書』 권27, 五行志 7, “元封六年秋 蝗 先是 兩將軍征朝鮮.”

79) 李丙燾, 1976, 「玄菟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69~170쪽; 趙法鍾, 2000, 「衛滿朝鮮의 崩壞時點과 王儉城·樂浪郡의 位置」, 『韓國史研究』 110, 7~26쪽.

80) 『通典』 권186, 邊方 2, 高句麗, “裴矩溫彥博進曰 遼東之地 周爲太師之國 漢家之玄菟郡耳.”

배구 전에서 한이 설치한 3군으로 현도·낙랑·대방을 들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졸본주에 이르러 도읍으로 정하였는데 졸본주가 현도군의 경계에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⁸¹⁾ 현도는 고구려와 관련된 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낙랑·대방은 『삼국유사』에서 신라에 투항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한은 위만조선을 멸하고 군현을 설치하였는데, 『삼국유사』에는 이러한 군현이 모두 신라·고구려와 관련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위만조선은 고구려와 신라가 고조선이라는 하나의 조상에서 유래하였음을 제시할 수 있는 매개체로 적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 역시 일연이 위만조선에 주목한 이유로 보인다.

맺음말

『삼국유사』의 위만조선 관련 기록은 『한서』, 『삼국지』 등을 축약하여 인용하였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내용을 줄인 것이 아니라 위만조선을 돋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내용 정리를 하였다. 『한서』의 내용을 축약한 위만조선 조에서는 위만조선이 건립 이후 주체적으로 세력을 확대하였으며 한의 침공에 맞서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항전하였던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한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된 내용은 최대한 삭제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고조선·위만조선이 연과 관련 있음을 제시한 기록은 그대로 두었으며, 위만조선의 도읍인 왕검성과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내용은 『한서』의 주를 인용하면서까지 제시하였다.

마한 조에서는 『삼국지』 기사를 변경하여 인용하였는데, 위만과 준왕의 전투에 대해 위만을 주체로 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삼국지』, 『후한서』

81) 『三國遺事』 권1, 紀異 1, 高句麗, “至卒本州[玄菟郡之界] 遼都焉.”

등과 달리 준왕이 기자의 후손이라는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삼국유사』는 기자가 고조선 사회를 교화한 내용도 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려·조선 시대 사서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기자에 의해 교화된 고조선 사회의 파괴자로서의 위만의 모습이 『삼국유사』에는 없다. 『삼국유사』는 기자조선과 준왕의 위상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 위만조선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연은 『삼국사기』, 『제왕운기』 등과 달리 위만조선을 우호적으로 서술하였다.

일연이 위만조선에 주목한 것은 단군왕검이 세운 고조선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라, 고구려, 부여 등 동방의 여러 구성원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나라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다만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다양한 사료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 때로는 중국 사서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개작하는 문제도 드러났다. 그렇지만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어떻게 개작하였는지를 통해 일연이 추구한 바를 어느 정도 살필 수 있었다.

먼저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평양에 도읍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위만조선은 고조선을 세운 단군왕검의 이름을 도읍명으로 사용한 국가로, 『삼국유사』에 단군왕검은 고조선의 창립주, 위만은 고조선의 강역을 크게 넓힌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일연은 이 위만조선의 강역에서 삼한·삼국이 나왔다고 보았다. 이러한 위만이 연 지역 출신이라는 것과 고조선의 일부가 전국시대에 연에 복속된 내용이 위만조선 조에 실려 있는데, 일연은 위만을 연에 복속되었던 고조선계로 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위만의 성씨를 ‘衛’ 대신 당시 고려의 성씨 중에 있었던 ‘魏’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연이 위만을 우리 동방의 구성원과 관련 있음을 드러내고 싶어 했음을 보여준다.

신라에 대한 기록에서도 위만조선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진한 조를 보면 신라의 전신인 진한이 秦에서 온 망명객이라는 것과 연

지역 사람과 관련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삼국유사』에서 연과 관련된 내용은 위만조선과 진한 조에서만 보이는데, 일연은 연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신라가 혈연적으로 고조선과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음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위만조선 멸망 이후에 설치되었던 낙랑과 대방(북대방) 주민이 신라에 투항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낙랑군이 곧 고조선이라는 인식 속에서 고조선 주민의 신라 이주를 제시하였다. 일연은 신라와 위만조선과의 관계를 통해 신라는 단군왕검이 세운 고조선과 관련 있는 국가임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부여의 해부루와 고구려의 주몽에 대해 해모수의 아들이라는 내용과 함께 단군의 아들이라는 내용도 있어 부여·고구려가 고조선과 관련 있음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천제 해모수가 내려온 흘승골성에 대해 요동군 의주 경계에 있었다고 적었고, 고구려 주몽이 나라를 세웠다는 졸본에 대해 요동 또는 현도 경계에 있다고 하였다. 부여·고구려 모두 요동 일대에서 성립된 것으로 서술한 것이다. 일연이 천제 해모수가 내려왔다고 본 요동의 의무려산은 전국시대 연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부여·고구려도 위만조선·신라와 동일한 지역에서 나왔다고 인식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당서』 배구 전 자료를 변형하여 한이 위만조선 지역에 현도, 낙랑, 대방을 두었음을 제시하였는데, 『삼국유사』에서 현도는 고구려, 낙랑·대방은 신라와 관련되어 있다. 즉 현도는 주몽이 도읍을 정한 졸본주가 있었던 곳으로, 낙랑·대방은 그 주민이 신라로 유입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삼국유사』에서 위만조선은 고구려와 신라가 모두 고조선에서 나왔음을 설명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는 12~13세기를 거치면서 밖으로는 몽골의 침입과 간섭에 시달렸고 안으로는 신라·고구려·백제 부흥을 내세운 세력의 반란이 이어졌다.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하며 국호를 고려로 정하였지만 신라

의 땅에서 일어난 나라였다. 고구려와 신라 모두와 관련이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만을 강조할 경우 고구려나 신라 계승 의식을 가진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들이 하나의 조상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일연은 위만조선을 통하여 단군왕검이 고려 구성원 전체의 시조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삼국사기』, 『제왕운기』 등과 달리 기자조선의 비중을 낮추고 위만조선에 주목하였다. 다만 『제왕운기』처럼 선언적인 형태로 제시하기 보다는⁸²⁾ 관련 사료를 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료를 개작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한계를 보였다.

82) 『제왕운기』에서는 신라, 고구려, 남·북옥저, 동·북부여, 예·맥이 모두 단군의 후예라고 기술하였는데, 부여 이외에는 단군과 이들 나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1. 사료

『漢書』, 『潛夫論』, 『三國志』, 『後漢書』, 『通典』, 『舊唐書』, 『三國史記』, 『三國遺事』, 『帝王韻紀』, 『高麗史』, 『東國通鑑』, 『標題音註東國史略』, 『記言』, 『東史綱目』, 『修山集』

2. 논저

- 최남선, 1946, 「三國遺事解題」 『新訂 三國遺事』, 三中堂書店
- 박시형, 1963, 「만 조선(滿朝鮮) 왕조에 관하여」 『력사과학』 1963-3
- 김영태, 1974, 「三國遺事の體裁와 그性格」 『東國大學校論文集』 13
- 하현강, 1975, 「高麗時代の歷史繼承意識」 『梨花史學研究』 8
- 이병도,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정중환, 1977, 「三國遺事 紀異篇 古朝鮮條에 引用된 魏書에 對하여」 『大邱史學』 12·13
- 김한규, 1980, 「衛滿朝鮮關係 中國則史料에 대한 再檢討」 『釜山女大 論文集』 8
- 박광용, 1980, 「箕子朝鮮에 대한 認識의 변천 - 高麗부터 韓末까지의 史書を 중심으로 -」 『韓國史論』 2
- 田中俊明, 1982, 「檀君神話の歴史性をめぐって - 史料批判の再檢討 -」 『韓國文化』 4-6
- 한영우, 1982, 「高麗~朝鮮前期의 箕子認識」 『韓國文化』 3
- 이기백, 1984, 「三國遺事 紀異篇의 考察」 『新羅文化』 1
- 이재운, 1984, 「<三國遺事>의 始祖說話에 나타난 一然의 歷史認識」 『全北史學』 8
- 최상천, 1985, 「《三國遺事》에 나타난 國家繼承意識의 검토」 『韓國傳統文

化研究』 1

- 채상식, 1986, 「至元 15年(1278) 仁興社刊 歷代年表와 三國遺事」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 민현구, 1989, 「高麗中期 三國復興運動의 역사적 의미」 『韓國史市民講座』 5
- 서영대, 1994, 「檀君關係 文獻資料 研究」 『檀君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서영수, 1996, 「衛滿朝鮮의 形成過程과 國家의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9
- 이근직, 1998, 「『삼국유사』 왕력의 편찬성격과 시기」 『韓國史研究』 101
- 조법중, 1998, 「高句麗의 馬韓繼承 認識論에 대한 檢討」 『韓國史研究』 102
- 하정용, 1998, 「『三國遺事』의 編纂과 刊行」 『先史와 古代』 11
- 조법중, 2000, 「衛滿朝鮮의 崩壞時點과 王儉城·樂浪郡의 位置」 『韓國史研究』 110
- 박진태 외, 2002,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박이정
- 최광식 외, 2002, 「『三國遺事』 點校(1)」 『韓國史學報』 12
- 이익주, 2003, 「고려후기 단군신화 기록의 시대적 배경」 『문명연지』 9
- 김두진, 2004, 「『삼국유사』의 인용문과 그 성격」 『史學研究』 76
- 김성수, 2004, 「高句麗와 古朝鮮의 正體性 확인을 위한 『三國遺事』 紀異篇의 書誌的 分析」 『書誌學研究』 29
- 배진영, 2005, 「燕國의 五郡 설치와 그 의미 - 戰國時代 東北아시아의 勢力 關係 -」 『中國史研究』 36
- 이강래, 2005, 「『삼국유사』의 사서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0
- 김성환, 2006, 「고려시대 단군관의 역사적 정립」 『白山學報』 75
- 김상현, 2007, 「三國遺事의 編纂과 刊行에 대한 研究 現況」 『佛敎研究』 26
- 차광호, 2009,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紀異)편’의 저술의도와 고구려 인식」 『史學志』 41
- 하정용, 2009, 「『삼국유사』 고구려 관련 기사의 성격에 대한 일 고찰」 『韓國史學史學報』 20

- 김주성, 2010, 「삼국유사 기이편 신고찰」 『한국학논총』 34
- 이강래, 2010, 「『삼국유사』 편찬의 유기성 문제」 『역사학연구』 40
- 김병곤, 2011a, 「『삼국유사』 찬자의 상고기 정치체에 대한 계승 인식」 『韓國史學史學報』 23
- 김병곤, 2011b, 「斯盧國의 출범과 신라인의 건국관」 『新羅史學報』 23
- 김남중, 2014, 「위만의 출신 종족에 대한 再考」 『先史와 古代』 42
- 김두진, 2014,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연구』, 일조각
- 엄태웅, 2015, 「삼국유사 「기이」 부여·고구려 관련 기사의 서술 의도 -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에 대한 역사적·서사적 접근 -」 『洌上古典研究』 47
- 윤선태, 2015, 「『三國遺事』의 後人夾註에 대한 再檢討」 『한국고대사연구』 78
- 조원진, 2015, 「고려시대의 기자 인식」 『韓國史學史學報』 32
- 박대재, 2016, 「箕子朝鮮과 小中華」 『韓國史學報』 65
- 김수태, 2017, 「《삼국유사》의 편목구성과 삼한·삼국통일론」 『新羅史學報』 41
- 주보돈, 2017, 「『삼국유사』를 통해본 일연의 역사 인식」 『嶺南學』 63
- 박대재, 2018, 「『삼국유사』의 고조선·삼한 인식」 『삼국유사의 세계』, 세창출판사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9, 『역주 고조선 사료집성 국내편』, 새문사
- 송영대, 2019, 「『삼국사기』·『삼국유사』 찬자의 『통전』 활용과 인식 고찰」 『韓國史研究』 186

Abstract

The Descriptive Intention Contained in the Records of *Samgukyusa* Related to Wiman Joseon

Kim Nam-jung

This article looked at why wiman joseon was valued in *samgukyusa*. In wiman joseon section of *samgukyusa*, the contents of *hanseo* are abbreviated in a way that highlights wiman joseon. In addition, ilyeon described wiman joseon in a friendly way that did not address the fact that king jun was a descendant of jizi and that jizi had enlightened old joseon society. The reason why ilyeon paid attention to wiman joseon was not only because wiman joseon succeeded the old joseon founded by dangunwanggeom, but also because it was a country closely related to various members of golyeo such as silla, gogulyeo, and buyeo. Wiman joseon, like the old joseon, is a country that has been capitalized in pyungyang and used the name dangunwanggeom as the city name, within *samgukyusa*, dangunwanggeom is the founder of joseon, and wiman is described as a person who greatly expanded the territory of joseon. It can also be inferred that ilyeon regarded wiman as a person of old joseon who was enshrined in the yan dynasty and he wanted to reveal that wiman was a figure related to our east. Ilyeon wanted to say that through the common ground of yan, silla was a descendant of joseon in blood. An article in which residents of nakrang and daebang surrendered to silla suggested that the residents of joseon had moved to silla.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silla and wiman joseon, ilyeon wanted to suggest that silla was the successor to the old joseon founded by dangunwanggeom, not china. *samgukyusa* described both buyeo and gogulyeo as having been established in the liaodong area. It can be seen that ilyeon recognized that buyeo and gogulyeo also came from the same area as wiman joseon and silla, given that the liaodong area was part of yan at the zhanguo-shidai period. In *samgukyusa*, wiman joseon is acting as a link to explain that gogulyeo and silla are both from the old joseon. Through wiman joseon, ilyon wanted to present that dangunwanggeom was the founder of all members of golyeo, thereby lowering the weight of jizi and noting to wiman joseon.

Keywords : Wiman Joseon, *Samgukyusa*, Old Joseon, Silla, Gogulyeo,
Buyeo, Link